

### 여름휴가와 불서가 만날때

# 의욕 재충전

산사 여름수련회 경험자들은 한결같이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참가자들 대부분은 불교를 좀 더 깊이있게 알기위해 불서를 읽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산문을 나서지만 막상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고 말한다.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을 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불서'를 체계적으로 알게 해주는 수련회가 된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름 수련회를 열고 있는 본사급 사찰은 해인사, 통도사, 백양사, 송광사, 불국사, 쌍계사, 대흥사, 직지사, 월정사, 봉선사, 은혜사 등 모두 11곳. 이중 '불서읽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직지사 단 한 곳 뿐이며, 나머지 사찰들은 강의주제와 관련된 경전을 소개하는 정도다.

그러나 11개 사찰의 수련회 담당 스님들은 모두가 '불서읽기'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불서읽기 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음은 물론 참가자들 상당수에 달하는 비불교인들을 불교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송광사 등 몇몇 사찰은 다음 수련회때 꼭 고려해 보겠다는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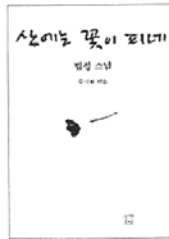
## 사찰여름 수련회 '불서읽기' 프로그램 없다

를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직지사의 경우 지난 3년동안 윤창광, 남지삼씨 등 작가를 초청해 강연을 하고, 불자로서 읽어 아할 교양도서와 입문서, 선서, 전문서 등을 선정할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일선 스님들은 수련회 프로그램 마련 과정에서 '불서읽기' 관련 프로그램을 떠올리기는 하지만 결국은 주저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 주된 이유는 하고 싶어도 어떤 책을 어떻게 권유해야 할지 기준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효과여부에 대한 확신부족도 또 하나의 이유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인스님(대흥사수련원 지도법사)은 "중단차원에서 수련회에 알맞은 '불서'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하는 등 보다 조직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 관계자들은 사찰의 특성이나 불교입문, 선, 경전 등 매년 일정한 주제를 정해 불서읽기 안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명우 기자



산에는 꽃이 피네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다. 산은 곧 커다란 생명체로, 시를 지어주는 영혼의 품속이다. 산에는 꽃이 피고 꽃이 지는 일인이다. 시가 있고, 음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종교가 있다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20세기의 창조자'로 불리는 보르헤스 도처에 흩어져 있는 그의 깨달음의 단편을 호두껍질 속에서 무한한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것을 체험했다. 그 체험의 핵심은 '여기 지금'



마음 읽는 길

깨짐에 이른 뒤에도 오래 비우고 살펴 밟아 생각해볼 줄이 없네 버리고 버려서 무위에 이르러야 진정한 깨침이리니 전하 모든 선지식이 깨진 뒤에다 스 막이는 깨워이 거기 있네



불교입문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고 반대하지만 지상적인 안내서가 있다면 길을 찾기가 한결 쉬운 법 이 평범한 세상을 읽고 바르게 가려낸 부처님 가르침을 펴는 것 외에는...



선학의 황금시대

선학이란 당대(唐代)의 위대한 선사들에 의해 제정되고 교시되었던 불교의 교리 선학의 의미를 주축할 언어로 생기 발랄하게 서술했다면 기이 선을 선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야할까

여름휴가가 시작된다. 번잡한 세속을 벗어나 시원한 산과 바다를 찾고 싶은 마음에 벌써부터 들떠 오르지만 올해는 IMF파로 그것도 여의치 않을듯 싶다. 불자라면 이때 평소 가고 싶었던 산사를 찾는 것도 좋은 휴가방법의 하나. 하지만 '불서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만큼 시원하고 유익한 휴가법이 또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 스님, 법사, 학자, 작가, 시인, 신행단체장, 언론인 등 각계 25인의 불자들에게 여름휴가철에 읽을만한 불서 2권씩을 추천받았다. 여행지에 동반할 가벼운 불서를 고르는 것도 좋고 또 평소 읽기 어려웠던 목격한 불서 한 두 권을 정해 읽어보는 것도 휴가를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이 될 것이다.

### 교계 인사 25인 추천 '휴가중 필독불서'

이들의 추천의 변을 이렇다. 치열한 수행과 구도의 길을 걷는 불가의 이야기들은 은 되돌아 본 삶 속에 '용기'라는 불등이를 던져준다. 이렇듯의 비비(?)을 통해 시원한 여름은 '마음'에 달렸다는 이치까지도 깨닫게 한다. 맑은 시냇물처럼 흘러내리는 스님들의 이야기는 산 속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하고, 활자로 만나는 불교의 이치는 기쁨과 시원함의 바람을 맞으면서 불교라는 큰 산을 내려오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많은 추천대상에 오른 불서는 법정스님의 글을 투시화 시인이 엮은 <산에 꽃이 피네>(동쪽나라 판). 생명종심주의의 불교사상이 일관되게 흐르면서도 요점처럼 IMF로 어려운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책이다.

20세기 서구사상계에 불교사상의 정수를 단비처럼 뿌렸던 아르헨티나 출신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 1899~1986). 그와 만날 수 있는 <보르헤스의 불교강의>(보르헤스 김홍근 역, 여시아문 판) 역시 강력한 추천을 받은 책. '내 안의 여러 모습 가운데 진짜는 누구인가'를 주요 주제로 다루면서, 이러한 의문점들을 보다 가르침의 핵심인 사성제와 운회, 무아, 열반의 의미에서 풀어나가고 있다. 특히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자기화' 할 것인가를 밝혀주고 있기에,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고전과 같은 양사다.

성철스님 법문집인 <자기를 바로 불시다>(장경각)를 비롯해 <무소유>(법정, 범우사), <깨침을 향하여>(강건기, 불일), <물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법산 역음, 매일경제신문사) 등 스님의 법문을 모은 책들도 휴가기간동안 읽어볼만 하다. 또 <불교입문>(조계종 편집부, 조계종 출판사) (100문 100답-불교입문편)<대원정사 편집부, 대원정사) 등도 불교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인도불교>(나라 야스카, 정호영 역, 민족사)도 초심자들에게는 불교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책이다.

최근 몇년간 나온 이런 책과는 달리 치열한 구도심을 지녔던 선사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읽어보는 것도 보람있는 휴가를 보내는 방법이다.

종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하나의 무게를 어찌지 못해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삶의 지표를 제시한 지눌스님의 <마음 읽는 길(수심결)>(강건기 역, 불일)과 서산대사의 <깨달음의 거울(선가귀감)>(법정 역, 불일) <임제록>(아나기다 세이잔, 일지 역, 고려원) <역사로 읽는 원효>(김상현, 고려원) <경허선사>(이흥우, 민족사)등은 선사들의 사자후를 들으면서 무대위를 식히기에 충분하다. 이들 선사들의 일같은 세속에 찌든 사람들에게 등골이 오싹할만큼 교훈을 준다.

중국인 학자 오경운박사가 쓴 <선학의 황금시대>(서문각·이남영 역, 천지)는 선불교의 계보와 진수를 일반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한 책. 선불교 입문서로는 제격이다. 선을 문학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바소의 하이쿠 기행>(마츠 오바쇼, 김경례 역, 바다)과 선을 재미있게 풀어나간 <선사상>(아나기다 스키단, 서경수·이원하 역, 한국불교연구원) 등도 한

### 좋은 불서 골라 삼매에 빠지면 더위도 이기고 지해도 생길터이니

여름 밤 선의 세계에 빠져들기에는 그만이다.

불서를 말하면서 경전을 빼놓을 수는 없다. 요즘에는 크기와 분량을 줄이고 편집을 재미있게 해서 경전을 접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들이 많다. <법구경> <반야심경> <초발심지경문> 등을 주머니에 넣고 휴가지와 휴가를 다녀오는 도중 읽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추천이 있었다.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에세이집 <남산이 복산을 보여 웃네>(맹랑자, 세훈)와 불교적 색채를 짙게 느낄 수 있는 잠언시집 <그리움은 돌아갈 자리가 없다>(천양회, 작가정신), 불교의 향기를 뽐낸다는 소설 <비어있는 날들의 행복>(이상우, 달일) 등 문학작 색채의 불서들도 읽어볼 만 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은 주가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작한 일 생각하면 그 일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즐거움이 그로 따르리. 마치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지혜는 선정에 의해 빛을 발하고, 선정은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더 심화되어 간다. 선정이 없는 지혜는 메마른 분필지로 퇴색하고, 지혜가 따르지 않는 선정은 공허하고 맹목적인 것이 된다

사람의 마음은 독하고 악하기가 하늘을 뚫고 난다. 학과 정계 구를 저편을 가며, 이 몸은 누구와 더불어 가야 하는가 학과 정계 가면서, 가는 뜻을 잊으면서, 죽으면서, 닦으면서, 림프면서

원효는 구도자다. 용맹으로 정진하던 수행자였고, 원효라는 이름을 떨쳐내고, 진리의 성을 공격하던 강부였다. 거침없는 비판자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여름을 반성할 줄 아는 이

울창한 여름 숲 해와 달은 여행객이고, 오고 가는 해(車) 또한 나그네이다. 사람이라야 오 격도 되지 않는 풀로 엮은 입자, 엮을 것도 없었네. 비탄 없었더라면...꼭다구리도 입자만은 안 찢었네

### '98 상반기 베스트불서 2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림
2	불교입문	조계종교원	조계종출판사
3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족사
4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울순	신우당
5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효림
6	알기쉬운 불교미술	동국대학교	반출판사
7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김홍근	여시아문
8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윤수	민족사
9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동쪽나라
10	무소유	법정	범우사
11	마음 읽는 길	윤 타	대원정사
12	생활속의 불교수행	한해경	여시아문
13	남산이 복산을 보여 웃네	맹랑자	세훈출판사
14	불교교리	조계종교원	조계종출판사
15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조 권	여시아문
16	팔만대장경을 읽어보는 10가지 이야기	진현중	해음
17	참선교육	현 담	조계종수련회
18	금강경 강의	무 비	불광
19	수행으로 가는 길	이재열	대원정사
20	장가안가길 잘했네!	무 학	풍은인연

구입문의:(02)737-0695

**서예백화점 文化의 빛**

# 이화문고

이제 인사동에 이화문고가 있습니다.

- 梨花文化出版社의 直賣店
- 書藝 관련 도서 完備
- 書藝인이 필요로 하는 辭典, 字典, 法帖, 四君子, 篆刻, 陶藝, 漢文學, 東洋哲學, 東洋歷史에 관한 도서를 구비, 陳列하였음
- 書藝·美術雜誌의普及
- 신용카드 가맹점 완비
- 最大의 친절봉사

서울의 명소인 인사동... 하지만, 우리 전통문화가 퇴색해 가고 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사동의 명물로 이화문고가 탄생하여 우리 고유문화를 지키는 보루(堡壘)가 되려 합니다.

1998. 7

共同代表理事  
社長 金禮東(영가문화사)  
副社長 李洪淵(이화문화출판사)

서울 중로구 낙원동 213-13  
TEL : 732-7095,  
722-0670  
FAX : 722-0671

# 書藝大字典

(上下合本)

서예대전 上·下 양권을 한권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최고급 사전용지로 500부 한정본을 발간하여 우선순위 공급하여 드립니다.

## 文字學·篆刻·史學·建築學·畫學의 필수字典

정통 서예의 연구에!! 격조 높은 글을 쓰는데!! 집자를 하는데 필수 사전!!

4×6배면 3000면 42g사전용지/상 하합본: 2160,000원

150,000자의 名蹟을 집대성한 完璧한 大字典

- 本書는 篆·隸·楷·行·草의 五體를 처음으로 종합한 書體字典이다. 최고의 문자자료인 甲骨文, 金文을 비롯하여 역대의 碑誌·法帖에서 墨跡에 이르기까지 두루 수집하여 모두 사진에 의해 편집하였다.
- 採錄의 범위는 설문에 실린 9,350여자 및 중문을 제외하고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실도록 하였다.

※ 전화주시면 즉시 우송하여 드립니다. ※

書藝字典普及會 TEL:722-0861~3